

■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8000m 급 14좌 초등 기록

대상 (높이)	K2(8611m)	브로드피크(8047m)	가셔브롬 II (8035m)	가셔브롬 I (8066m)	낭가파르밧(8125m)	다울라기리(8167m)	안나푸르나(8091m)	마나슬루(8163m)	시시랑마(8012m)	초오유(8201m)	에베레스트(8848m)	로체(8511m)	마칼루(8463m)	캉첸중가(8586m)
등정일자	2000.6.26	1995.7.12	1999.7.18	1999.7.18	1997.7.9	2009.5.1	2010.4.27	1992.9.25	2000.10.5	1997.9.21	1993.10.6	1988.10.2	2000.5.15	2013.5.20
등정자 (소속)	이정현·주우평 (이상 순천대) 윤중현·김주형 (이상 조선이공대)	박현재·이정현 (순천대) 변성호(순천제일대)	김용재·최호 (목포대·목포과학대)	이정현·주우평 (이상 순천대)	김주형 (조선이공대)	김홍빈·김미곤 (송원대·서영대)	나관주 (서영대)	이용철 (조선대)	이현조 (전남대)	박현주·김성석 (이상 전남대)	박현재 (순천대)	임형철 (조선대)	이현조 (전남대)	김홍빈 (송원대)

무등 청년들 열정의 25년, 히말라야 14좌에 휘날리다

김홍빈·나관주·김미곤 등 고산 등반가 배출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 운영 성과

“학생 산악연맹은 알피니즘의 모태(母胎)이자 지역 산악인들에게 도전과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 준 곳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피날레가 한창이던 1988년 10월 2일 세계 4위 봉인 로체(8511m) 정점에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기가 휘날렸다. 당시 국내 최초로 정상에 섰던 임형철(56·광주 정광중 교감·조선대산악회 OB) 연맹 고문은 “한국 원정대가 같은 날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848m)와 자매봉인 로체봉 연속등반에 성공했다”면서 “로체 등정은 광주·전남 8000m급 초등으로 광주·전남 산악인 히말라야 14좌 완등의 물꼬를 텄다”고 회고했다.



1988년 로체 한국초등자인 임형철(왼쪽)과 전남학생산악연맹 고문(왼쪽)과 지난 5월 칸첸중가를 등정한 김홍빈 대장(오른쪽).

14좌 완등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장에는 히말라야 원정 배이스캠프가 재연됐으며, 등반기록과 14좌 풍경을 담은 사진 전시회와 산악장비 전시회도 마련됐다.

또 2일에는 전국 60개 대학산악부 YB와 OB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등산 합동 등반을 하며 지역 산악인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1962년 태동한 학생산악연맹은 50년간 산악인 양성과 해외원정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학생 산악운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수차례의 히말라야 원정을 통해 김홍빈(송원대), 나관주·김미곤(이상 서영대) 등 걸출한 고산 등반가를 배출했다. 김홍빈은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매

킨리 단독 등반에 나섰다 심한 동상에 걸려 열 손가락을 잘라야 했지만 불굴의 의지로 세계7대륙 최고봉 등정에 이어 8000급 등정(현재 8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또 나관주는 14좌 중 8개 봉우리를 올랐으며, 김미곤 역시 브로드피크 등 4개봉만을 남겨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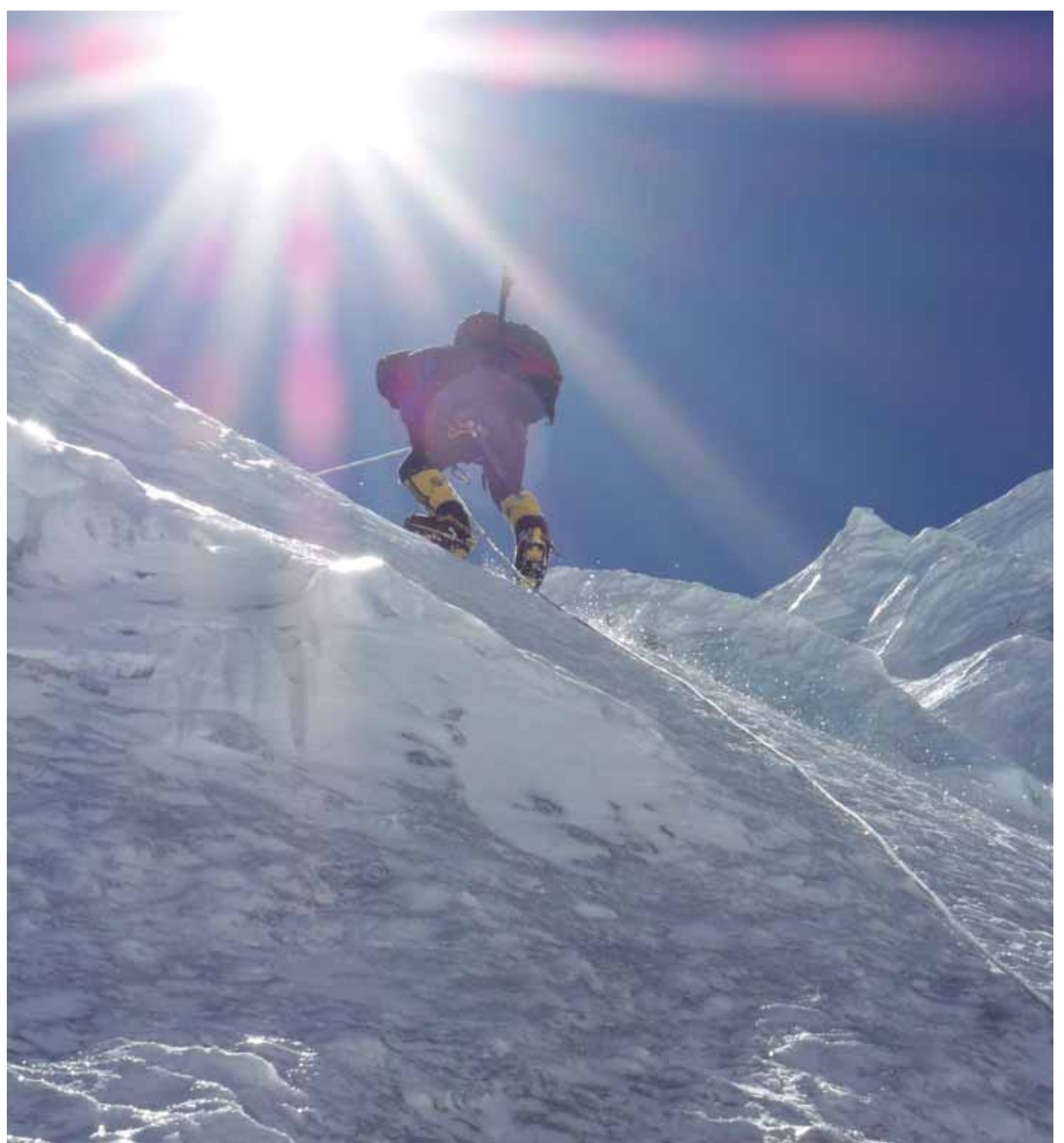
하지만 고산등반과정에서 1972년 마나슬루 원정대 오세근(조선대), 1990년 낭가파르밧 원정대 정성백(조선이공대), 1995년 빛고를 브로드피크 원정대 박현재(순천대), 1996년 유럽 알프스 3대북벽 원정대 최진식(순천대), 1998년 공가 원정대 오종락(목포과학대), 2007년 에베레스트 남서벽 원정대 이현조(전남대), 2010년 마나슬루 원정대 박행수(광주대) 대원이 영월히 산에 묻히는 아픔을 겪었다.

◇광주·전남 산악운동 활성화에 앞장= 학생산악연맹은 1979년 8월 지리산 피아골에서 현 광주·전남 등산학교의 모태인 ‘전남 산간학교’를 개설해 학생산악인 양성과 학생 산악운동의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정규반(7~8월) ▲암벽반(10월) ▲동계반(1~2월)으로 나눠 진행되는 등산학교는 일반과정과 지도자 과정을 거친 대학산악부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산악연맹 박찬호(목포해양대 OB) 전무이사는 “연맹은 지난 50여년간 광주·전남의 산악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학생 산악연맹 본연의 알피니즘 실천과 산악인 양성에 총심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은 지난 1988년 로체(8511m)를 시작으로 2013년 캉첸중가(8586m)에 이르기까지 히말라야 8000m 급 14좌를 모두 올랐다. 사진은 2010년 4월 안나푸르나(8091m) 빙벽을 오르는 서영대 산악부 원정대. (서영대 OB 나관주씨 제공)

“내년엔 자신감 뿌린다”

KIA 양현중, 명예회복 목표 오키나와서 구슬땀



시체말로 멘붕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정말 억울하고 아쉬울 뿐이다”고 말했다.

과욕이 부른 부상이라 아쉬움은 크다. 양현중은 “과욕이 부상을 부른 게 아닌 가 싶다. 당시 선발 등판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2주 만에 선발 등판을 했다. 팀이 삼성에 연패를 당하고 있던 터라 위급도 강했고, 체력이 남아있었다 보니 너무 과하게 힘을 주면서 투구를 한 게 확신이 됐다.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타자만 상대하면 그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전력 투구를 하고 마운드를 내려오고 싶었다. 그런데 결과는 최악이었다”고 부상 상황을 돌아봤다.

이강철 선배가 세운 10년 연속 두 자리 수 승 달성 기록을 깨고 싶다는 목표. 지난 2년의 부진 속에 새로 마음먹었던 목표도 9승에 멈춰서면서 실패했다. 아픈 기억이 큰 2013시즌이지만 “자신감”이라는 희망의 키워드도 있었다.

“충분히 타자를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고 꼽은 양현중은 “올 시즌 컨디션은 2010시즌보다 더 좋았다. 그래서 시즌 개막이 정말 기다려지기도 했다. 비록 부상으로 인해 아쉬움을 남긴 한 해가 됐지만 자신감은 확실하게 얻은 것 같다”고 희망을 말했다.

에이스 윤석민이 해외 진출을 선언하면서 내년 시즌에 대한 책임감이 더해졌지만 제2, 제3 선발로 역할을 하자는 게 양현중의 각오다.

양현중은 “캠프에서 송은범 선배의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 팀의 에이스는 송은범 선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후배들을 이끄는 모습부터 훈련하는 자세까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아마도 윤석민 선배에서 송은범 선배로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 제2, 제3 선발로 내 역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올 시즌 몸관리에 대한 중요함을 새삼 느꼈다. 이곳에서 기술적인 훈련보다는 내년 스프링캠프를 100% 소화할 수 있는 몸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아직 열구리 상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을 되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즌 초반에는 상대팀들도 우리 팀을 결코 쉽게 생각했는데 후반에 주축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만만하게 보고 우릴 상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말 자존심이 상했다. 내년에는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 오직 팀이 4강, 더 나아가 우승을 하는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2014시즌은 ‘명예회복’의 해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해남 출신 안한봉, 올해 최고 레슬링 지도자

국제레슬링연맹 선정

해남 출신의 안한봉(45) 한국 그레코로만형 레슬링 대표팀 감독이 국제레슬링연맹(FILA)에서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지도자로 뽑혔다.

대한레슬링협회는 안한봉 감독이 FILA 최우수 지도자로 선정돼 14~17일 포르투갈

알라마다에서 열리는 2013 그레코로만형 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한국 지도자가 FILA의 최우수 지도자에 뽑힌 것은 안 감독이 처음이다.

안 감독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레코로만형 57kg급 금메달을 비롯해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금메달, 1990년 세계선수 최우수 지도자로 선정돼 14~17일 포르투갈

레슬링의 전성기를 주도한 스타 출신이다. 지도력을 인정받아 올해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안 감독은 지난 9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동메달 1개씩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 레슬링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1999년 이후 무려 14년 만이었다.

/연합뉴스

논란의 중심 ‘박은선’

女 실업축구 WK리그 구단들 “여자 아닌 것 같다”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구단들이 박은선(27·서울시청·사진)의 성(性)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 박은선이 내년 WK리그에 뛰 수 없게 해달라는 결의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자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서울시청을 제외한 6개 구단 감독 간담회에서 내년 에 박은선을 WK리그 경기에 뛰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데 결의했다고 지난주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청 소속 골잡이 박은선은 180cm, 74kg에 달하는 당당한 체구에 특유의 낮은 목소리 때문에 성별 논란을 받은 적 있다.

그러나 박은선은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2005년 성인 무대에 데뷔한 이후에도 줄곧 여자 무대에서 뛰고 있다. 2003년 아시아 여

자선수권과 미국 여자 월드컵,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5년 동아시아대회 등에서 여자 대표팀 소속으로 뛰었다. 대한축구협회에도 여자도 등록돼 있어 박은선이 WK리그 경기에 출전하는 데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박은선이 꾸준히 리그에서 뛰어 왔는데 지금 와서 이런 것은 헛뜯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